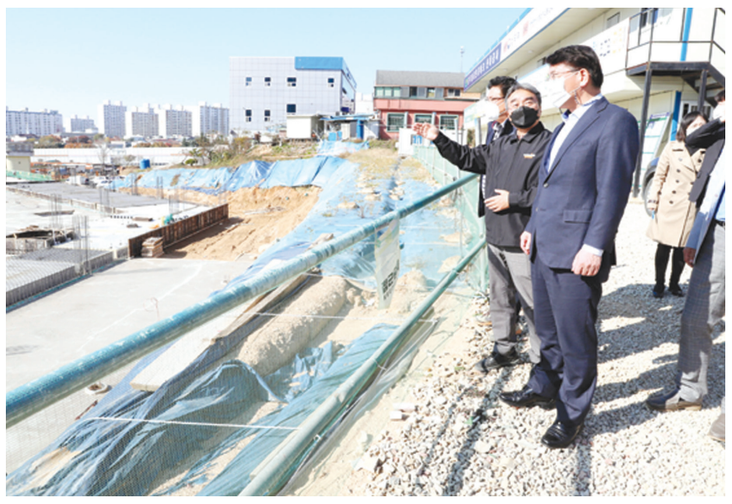
광주시, 민주·인권기념파크 사업 현장점검

김종효 행정부시장, 옛 광주교도소 부지 찾아 점검

광주솔로몬로파크 현장 방문해 애로사항 등 청취



광주광역시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조성할 예정인 민주·인권기념파크와 광주솔로몬로파크 사업현장을 현장 점검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12일 민주·인권기념파크와 광주솔로몬로파크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 진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국비1155억원을 투입해 북구 문흥동 옛 광주 교도소 부지를 민주·인권 역사체험 교육 및 청년 창업지원 혁신성장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2년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마치고 2023년부터 실시설계와 사적지 원형보존, 역사체험 및 혁신성장 공간 조성 등을 거쳐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솔로몬로파크 사업은 법무부에서 대전(충청권), 부산(영남권)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조성하는 로(Law)파크 건립사업의 하나로, 광주시는 모의재판, 입법 절차 등 법 상식을 체험과 놀이로 쉽게 이해시키고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솔로몬로파크는 2018년 신축설계공모를 거쳐 지난해 9월 실시설계, 10월 실시계획인가와 공용 건축물 건축협의 등 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중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5·18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의 상징성과 역사성이 조화를 이루고, 인권도시 광주의 대표 교류·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임종기 도의원, 도민안전실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 주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 지능형 cctv 설치사업 등 제안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 의원(순천2,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안전실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재난상황 발생 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 · 정확한 상황 전파로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 및 시스템 일원화"를 주문했다.

임종기 의원은 "자연재난이자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양성 환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전라남도가 선제적 행정을 펼친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안전실이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능형 방범 cctv 상황관리시스템을 12개 시군에 도비와 매칭하여 설치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비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사업을 전라남도와 10개 시군에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별개의 사업으로 여길 수도 있겠으나 도민안전을 다각적으로 살핀다는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일원화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24시간 재난안전 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민안전 cctv 설치 및 지능형 방범시스템 구축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모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시군, 경찰, 소방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도, 영세 조선업 '맞춤형 환경컨설팅'

중소 · 영세 조선업종…환경 전문성 부족 해소

전남은 코로나19 및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중소·영세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컨설팅 지원을 통한 환경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전남에 따르면 영암 지역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수주량 감소 등으로 재위기의 우려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비산배출시설 관리제 시행 등 정부의 대기관리 정책까지 강화돼, 전라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보강해야할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관리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지원은 영암 대불산단 내 중소 영세 조선업종 25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이중 전남도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0개소, 영암군 관할 배출업소가 15개소에 이른다.

전라남도는 사전 서면조사를 통해 기업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도와 영암군,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반을 꾸려 서면 또는 현장 환경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컨설팅은 주로 비산·대기·폐수배출시설, 비산먼지 등 환경분야 현장 진단을 통한 공정개선, 방지시설 보완 등 기술적인 노하우 전수를 비롯 환경정책 동향, 관계법령 준수사항, 환경개선자금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이 진행된다.

또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암군 등 유관기관이 환경 전반에 대해 행정 지원하게 되며,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해 산업현장의 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방침이다.

김상호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강화된 환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영세 기업의 환경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경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최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환경기술인의 관리 역량을 향상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동구, "우리 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요!"

광주 동구는 내일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올바른 자녀 훈육법'을 주제로 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동구는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드림스타트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훈육방법을 위한 정보습득과 실천을 위한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

서구 유덕동 지사협, "착한가게 사장님들 힘내세요"

광주 서구 유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기성)는 연말을 맞아 난 9일부터 이틀간 유덕동 관내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고 있는 '착한가게' 49개소에 코로나19 방역소독 및 작은 화분을 전달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매달 3만원이상, 일정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가게에 붙여지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유덕동에 착한가게로 동참하고 있는 곳은 50여 곳으로, 매달 120만원정도 금액이 모금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천256만원이 모금됐다.

모금액은 안부확인 반찬사업, 복지사각지대 Zero사업, 건강백세 장수생신 잔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남구, '구민의 날 행사' 축소 개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남구가 개청 25주년을 기념하는 '남구민의 날 행사'를 철저한 방역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개최한다는 방침이며 12일 남구민의 날 행사를 13일 오후 4시부터 남구 종합문예회관에서 참석 인원 및 대면 접촉 프로그램을 최대한 간소화시키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키로 했다.

남구는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매년 600여명 가량이 참석해 대규모로 치러졌던 구민의 날 행사를, 올해에는 1단계 방역 수준 준수에 따라 참석자간 2m 이상의 거리 유지 등을 위해 초청 내빈 및 주민 참석자들의 숫자를 150명 이내로 대폭 줄였다. 또 사전행사도 전통문화연구회 얼쑤의 모듬북 및 사물놀이 공연 등으로 간소화 했다. 특히 올 한해 사회봉사 분야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타인의 모범이 된 남구민에 대한 시상식 등과 정관계 기념사 및 격려사 축사도 짧은 시간에 마칠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북구, 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 드라이브 인 공연

광주 북구는 오늘 15시부터 19시까지 광주패밀리랜드 자동차극장에서 '2020 북구 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펼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총 29개팀이 참여해 시낭송, 밴드공연, 기타연주, 퓨전난타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지며 주민들은 자동차 안에서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광산구, 5·18 민주·인권 토크 콘서트 개최

광산구가 11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역사의 증언, 오월 우리가 보았던 세상'을 주제로 민주·인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기억해야 할 시간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자리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5월 예정됐던 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돼 개최된 것.

행사에는 5·18민주화운동 거점 공간이었던 녹두서점의 김상윤, 정현애, 김상집 씨가 출연해, 1980년 5월 당시의 상황과 청년 윤상원 열사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관객들에게 전했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